



시니어들의 든든한 동반자

애녹재



홀로 사는 80대 어머니에게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은 농촌의 오래된 집이어서 아들이 살기에도 방은 충분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아들의 귀향을 무척 반겼습니다. 그러나 곧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버는 수입으로 생활하다보니 적자가 계속되었고, 얼마 되지 않는 저축도 곧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반년이 지나 아들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아들의 병원비는 겨우 해결했지만 퇴원한 아들은 후유증으로 재취업이 어려워 집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 방송사 NHK에서 제작한 <노후파산>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령인구가 3,000만명을 돌파해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에서는 600만명의 고령자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인 300만명이 생활보호수급 이하의 연금수입자인 일본에서 생활보호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0만명에 불과합니다. 200만명 이상이 하루하루 목구멍에 풀칠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연금은 계속 줄어들고, 의료·간병비의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저금도 없이 살아가는 고령자들은 파산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에게 직장을 잃은 자식이 찾아와 부모와 자식이 동반 추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돈이 있는 사람도 불안감에 빠져 평생 저축을 끌어안고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67세니 상속받은 이는 다시 그 돈을 끌어안고 살다가 죽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니 소비시장은 얼어붙고 사회는 활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2060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위쪽에 몰려 있는 '역피라미드'형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3월2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에 따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2014년에 40.2세로 처음으로 40세를 넘어섰지만 2040년이면 52.6세, 2060년이면 57.9세가 됩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

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에 17.9명이었지만 2040년 57.2명, 2060년 80.6명으로 급속히 늘어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기술 발달이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인간이 120세까지 살면서 29~40종의 직업을 전전할 것이라고 예측하지요. 이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읽고, 쓰고, 토론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진정한 생존법을 터득하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노년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애녹재에 오십시오. 함께 책 읽고,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가진 지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 우리 시니어들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도록 애녹재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배움의 동반자

'애녹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애녹'(창 5:24)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을 본받아 설립된 공간입니다. 이곳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꿈꿉니다.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할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시니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안복지재단은 시니어들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통해 시니어들의 문화적 필요를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원자 여러분에게 함께 보내드리는 「시니어리더십」은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책을 보급하는 '지식나눔'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50

한 주에 250분의 어르신들이 부식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360

인천시의 360개소 노인전문기관에 지식나눔을 실천합니다.

1,000

애녹재에는 1,000권의 도서들이 시니어들의 이용을 기다립니다.

주요 사업



부식지원 서비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빵/우유, 라면 등의 부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서전 쓰기
자신의 인생을 글로 정리하여 자녀들에게 책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식나눔 사업
시니어가 읽기 편한 글씨 크기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판형으로 제작된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